

강진군 성전면에 찾아온 '선한친구들'의 사랑의 의료 봉사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마음 담긴 의료 지원 현장 눈길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자 모임인 '선한친구들'(대표 문경주 목사)은 지난 15일, 강진군 성전면 성전중앙교회를 찾아 폭염에 지친 어르신과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지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복지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70여 명의 봉사단은 내과, 정형외과, 치과, 영상의학과 등 양방진료와 한방진료, 그리고 침술, 미니뜸, 아로마테라피 등 대체의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주)

하안메디컬을 비롯한 협력기관의 의료진들이 내과 및 정형외과 진료와 약 처방은 물론,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끈 영양 수액 처치까지 꼼꼼하게 진행했다.

대체의학 분야에서는 사랑손 힐링봉사단이 주축이 돼 침과 미니뜸, 아로마테라피 등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줬다.

또한 진료 대기 중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레크리에이션과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를 마련해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이고 봉사단은 참석자 모두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기념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오명중 성전면장은 "계속되는 무더위와 지속적인 호우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성전면을 찾아 정성 어린 봉사활동을 펼쳐 주신 선한친구들 봉사단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의료 봉사는 제때 병원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건강한 삶 지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선한친구들은 2017년과 2018년 구례군, 2019년 광주광역시, 2022년 강진군 마량면 등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펼쳐 왔으며, 앞으로도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사)광주광역시광산구새마을회, 얼음생수 무료 나눔 행사

(사)광주광역시광산구새마을회(회장 안덕홍)는 지난달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얼음생수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사)광주광역시광산구새마을회(명예회장 김준행)는 폭염으로 지친 시민들이 시원한 얼음물로 더위를 식히고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고 함께하는 (사)광주광역시광산구새마을회가 될 수 있도록 새마을지

도지광주광역시광산구협의회(회장 유희권) 광주광역시광산구새마을부녀회(회장 백영실) 새마을문고중앙회광주광역시광산구지부(회장 안순자) 단체 회장단이 힘을 나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에 대응해 시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생수는 (사)광주광역시새마을회(회장 류재선)와 (사)광주광역시광산구새마을회(회장 안덕홍) 후원으로 모아졌다.

/오덕근 기자

고흥군 두원면, 여름철 무더위 속 훈훈한 나눔 실천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펼쳐

고흥군 두원면(면장 송창근)은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연일 이어진 폭염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남·여 의용소방대원(남신제철, 여 이명희)과 두원사랑봉사회(회장 류홍철) 회원 등 13명이 참여했으며 ▲주택 내부 청소 및 정리 ▲전기 누전 점검 및 냉장고 청소 ▲주택 외부 대나무·잡목 제거 ▲폭염 대응 행동 요령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기 누전 점검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이뤄졌다. 또한, 주택 외부 환경 정비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했다.

봉사에 참여한 남·여의용소방대와 두원사랑봉사회 회원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함께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송창근 두원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따뜻한 연대감과 이웃사

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장흥군-한국철도공사, 지역사랑 철도여행 업무협약 체결

인구감소 9개 지역과 철도 관광 활성화 위한 제3차 업무협약 체결

장흥군은 지난 14일 한국철도공사와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철도공사와 장흥군 등 인구감소 9개 지역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본사(대전)에서 개최되었다.

업무협약에는 철도와 연계한 인구감소 지역 관광상품 구성 및 운영 지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철도역과 주요 관광지 연계 교통체계 구축 및 관광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성 장흥군수는 "곧 개통하는 장흥역이 무인역으로 운영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이번 업무협약으로 군 관광 활성

화에 보탬이 되기 바란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 추후 장흥역 등 전남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역들이 유인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란다"고 요청했다.

장흥군에서는 9월말 목포-보성을 잇는 장흥역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방문객 지원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령대가 높은 장흥군민들이 장흥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배치하는 등 무인역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장흥군 제공

보성군, 손잡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한다

저장 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 민관 협력 업무협약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19일 저장 강박 의심 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보성건설기계협동조합(이사장 임승호), ㈜한양자원개발(대표이사 김기중), 동남환경건설(주)(사장 송연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저장 강박 증상 확산 등 위기가구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통합적·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협약에 따라 보성군은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성건설기계협동조합은 건설기계 장비를 활용해 주거 공간에 적체된 폐기물을 처리하며, ㈜한양자원개발과 동남환경건설(주)은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전담한다.

임승호 보성건설기계협동조합 이사장은 "적체된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도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보성군, 저장 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 보성군, 저장 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민·관 협력 업무협약식(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차례대로 보성건설기계협동조합이사장 임승호, 보성군수 김철우, (주)한양자원개발대표이사 김기중, 동남환경건설(주) 사장 송연중)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보성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현재 고독사 위험 42가

구와 은둔형 외톨이 6명을 발굴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

장성군 Jangseong